교·육·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교·육·하·자

교육선교소식

www.kcea.net

제9호
20150601

발 행 인 : 이윤식 회장
자료수집 : 박채평 사무총장
기　　획 : 고상경 기획조직위원장
편　　집 : 성미숙 집사



장재문 집사
(울산지방회장)

하나님의 형상이여 ! 섬기며 다스리자.(창1:27-28)
(제73차 여름연찬회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가 37년을 맞으며 여름연찬회를 울산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120만 인구인 광역시에 미션스쿨이 하나 없고, 복음화율이 10%도 안되는 열악한 영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배 교육자선교회 회원들의 기도와 후원교회들의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었음을 알게 해 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름 연찬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린다. 이번 연찬회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기대 한다. 중앙회를 비fht한 전국의 지방회, 지역회에서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기도와 간구와 참여하는 일로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시련을 통과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지난 2년 동안 준비해 오면서 수십 회의 기도와 회의, 현장 답사를 거치고 장소와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지난 4월27일 -28일엔 전국 원로회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원로회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함께 오실 줄 믿습니다.

또 어린이 캠프를 위해 경주 신라 요에 장소를 답사하고, 진행 프로그램을 울산 어린이 전도협회에 의뢰했습니다.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새로운 도자기 체험도 하고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유.초등 자녀들 때문에 고심하시는 회원님들은 안심하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시는 강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충만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영,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며 사단이 일체 근접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우리의 일터인 학교에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아직도 숨어 있는 기독교사들을 발굴하고, 사명을 깨닫게 하며 모든 휴가, 교육, 약속, 일정 등을 조절하시고 울산으로, 울산으로 몰려 오심으로, 울산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도록 제73차 여름 연찬회에 꼭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한교선원로회 전국연찬회(울산)



김규영 교육선교사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울산 지방회 주최로 원로회 전국 연찬회가 열렸다.

80명 정도의 원로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기도와 예배, 사례발표 그리고 관광을 하였다.

원로회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도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였지만 지금도 많은 봉사활동과 후배들 양성에 애쓰시고 계신 분들이다.

울산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과 여러가지 혜택을 주셔서 잘 섬겨 주셨고, 울산 지방회 회원들이 여러가지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장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였고, 특히 어려운 선교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은 선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일해 나가면 언젠가는 한국을 , 그리고 세계를 변화 시키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서로 연락하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울산은 참으로 아름답고 정돈된 도시여서 대왕암이며 태화루 등 아름다운 곳을 구경할 수 있었다. 동해안에 숙박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나고 회원들과 이런저런 장래를 의논하며 참으로 보람있는 시간들을 가졌다.

우리집에서 울산까지 370 KM 무려 6시간이 넘는 동안 차를 운전하고 갔다 오느라 힘도 들었지만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신 원로 회원들이 전국에 포진하고 계셔서 마음이 든든하다. 섬겨주신 울산 지방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교육선교지도자 비전캠프 및 전국 임원 대표 임시총회





"변혁의 선봉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주제로 4월 24- 25일 양일 간에 걸쳐 중앙회 회관(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12호) 외 백주년기념관에서 숙식을 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교육선교 지도자의 교육선교 비전을 강화하며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실천 방안과 정보를 교환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80여명의 대표들이 더욱 다짐하며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정화 이사장, 송계교육상 수상



한남대(총장 김형태)는 13일 서정화 한국교육자선교회 이사장(70)에게 '제3회 송계교육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은 이날 동교 정성균선교관 내 대학교회에서 열렸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상금 1,000만원이 전달됐다.
송계교육상은 제8대와 제9대 한남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고 이원설 박사의 뜨거운 교육 열정과 철저한 봉사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이 박사의 호 송계(松溪)를 따서 2013년 제정됐다.
제3회 수상자인 서 이사장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9년간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 분야에서 봉직하고 5년간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인재 양성에 진력했다.
특히 교육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등의 책임을 맡아 봉사했고, 시·도 교육청 평가 및 교원양성기관 평가위원장을 5차례 역임하면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개혁 추진에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서 이사장은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 불우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 한국교육자선교회 및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서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수상소감

초록의 함성이 우리의 산과 들을 뒤덮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계절에 귀하신 분들을 모신 가운데 제3회 송계교육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같이 부족한 교수가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 선교활동과 기독교문화 확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육자선교회 연찬회에서 이원설 박사님의 특강을 많이 들었고, 2002년 월드컵 때 교육선교 관련 모임에서 함께 일한 바가 있습니다. 또 김형태 총장님으로부터 이원설박사님의 대학관리에 헌신하셨던 일을 들으면서 기독교교육자의 롤 모델이 되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육이 그 본령을 회복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더욱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선교하며, 선교하고 교육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일이야말로 이원설박사님의 뜻을 기리고 본받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소 제가 사랑하는 한남대학교와 존경하는 김형태 총장님과 본 상을 위해 애써주신 김용환 학사 부총장님,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남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에 60주년을 맞는 한남대학교가 더욱 번창하고 웅비하여 차세대지도자 육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이사장
서정화

지방회 소식

대구



제13차 대구교육자학원선교대회

6월 9일(화) 19:00부터 남산교회에서 많은 기독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대 김재호 교수님을 모시고 제13회 대구교육자선교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청년의 죽음과 부활' 이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이상 특강이 있었는데요. 너무 시간이 짧고 유익해서 울산여름 연찬회 특강 강사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예수로 사는 복된 하루 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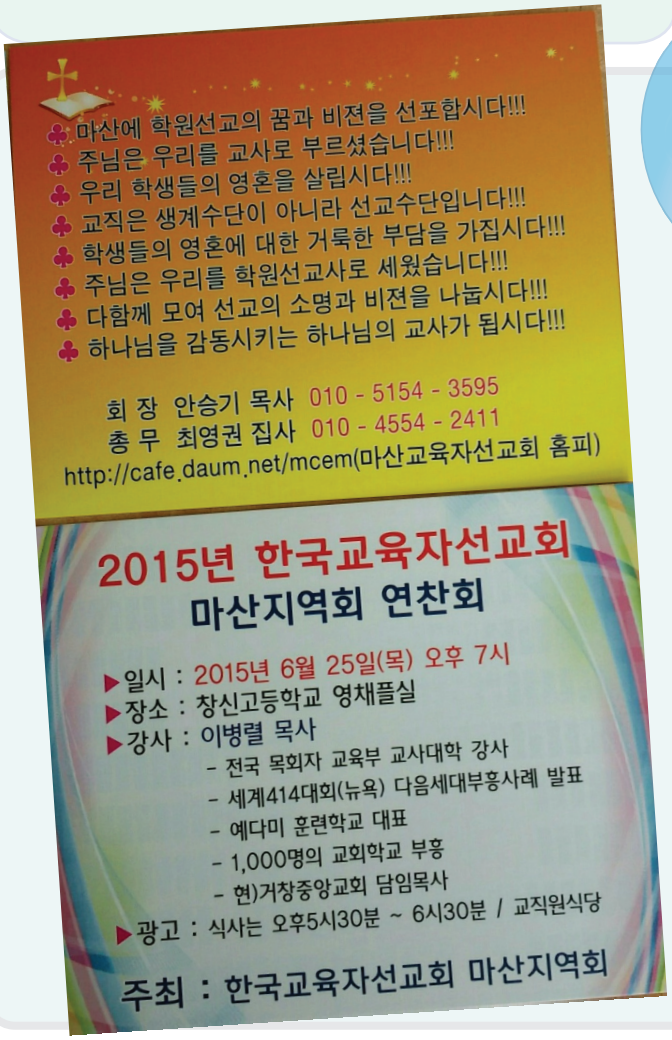
강원



강원지방회 제1회 기독교동아리활동 워크숍

5월30일(토) 10:00부터 화천 용호리 펜션에서 강원지방회 제 1회 기독교 동아리 활동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약 5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셨고, 2015 창의인성한마당 참가를 위한 컴앤씨 네트워크 구성, 기독교 동아리 연합 캠프, 인권조례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극소수의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임을 이란의 순교자 동영상을 보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마산



[2015년 한교선 마산교육자선교회 연찬회]

* 일시 : 2015년 6월 25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창신고등학교 내 영채플실(창신교회)
* 강사 : 이병렬 목사 (거창중앙교회 담임목사)

회장 : 안 승 기 목사
총무 : 최 영 권 안수집사

인천




인천기독교신문

인교선, 제14차 교육자선교대회 개최

한국교육자선교회 인천지방회

인천교육자선교대회가 부평감리교회에서 6.1(월)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교사'라는 주제로 최관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한국교육자선교회 인천지방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산



5. 30(토) 울산지방회 강북지역회에서 주최하는 제23회 울산 청소년 찬양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남

경남지방회 제5회 정기총회

지난 5월 26일(화) 오후6시 한국교육자선교회 경남지방 총회가 창신고등학교 채플실에서 있었다.

5회째를 맞이하는 금번 총회에서도 경남산하 각 지역회 회장단이 총대로 참석하여 진행이 되었다.

회무진행에 앞서 심상백 장로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서는 부회장인 서명 장로의 기도 후 신득일 교수(부산지방회장)의 '이 때를 위함이라!'(에4:14)란 제목의 설교에서 "모르드개의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에스더의 역할이 있었듯이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사역인 기독교사의 학원복음화의 역할이 이 때를 위한 것임을 알고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잘 감당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제73차 전국여름연찬회

주 제 : 하나님의 형상이여!
섬기며 다스려라(창1:27~28)

장 소 : 울산대학교 해송홀

기 간 : 2015. 8월3일(월)~ 5일(수)

초청인: 대회장 장재문 피택장로
준비위원장 이연숙 집사

한국교육자선교회 울산지방회
Tel: 052)287-1509 (010-9344-1509)
Fax: 052)289-1547

울산대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대학로 93
052)259-2046 (010-9664-2354)



박해평 사무총장님은 지난 5월 서울문학회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해 5월 중순(14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시낭송회가 열렸습니다.



1. 2015년 지방지역회 임원이 개선되는 곳은 속히 중앙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지역회명, 성명, 교회직분, 학교직명, 연락처, 메일주소, 집주소)
2. [기드온300후원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후원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고 매월 후원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바랍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편리하심).

한국교육자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며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하신 분들(2015.4월)

권경민 정순화 하정숙 이윤식 김규영 서정화 김순자
김남훈 강경천 주영진 김경순 김종화 김청극 장완동
오국진 박해평 민천기 이명숙 백순자 전상조 박경자
손경란 남상욱 오미라 정현효 조남호 서인철 정태옥
황연옥 이혜순 김구자 차재연 양금선 박예연 이미자
한정숙 조소현 박대덕 조남호 조만영 김숙희 이종호
박창대 차재용 송미림 신영옥 천성호 손효숙 문석관
신서영 김구자 여성애 이태세 서보연 신미선 진애경
박희덕 오미라 황영애 전혜순 하미순 유지영 기성임
차재연 강경천 안인숙 양효숙 정영희 이윤식 김희경
우상길 안성혜 김명순 이인규 백봉현 최상림 김태숙
양 민 서윤주 안보혜 이혜경 안용수 천기태 홍지선
오덕성 윤종남 최홍상 최복만 서 명 김정희 고재욱
남경혜 김종대 오세희 조만영 이옥선 하용주 박은희
김영숙 계기원 김정숙 신규철 도은준 이질례 최미련
강윤명 김미양 김영희 이 은 박정화 박연희 박경숙
양미정 이정희 이효신 백한진 한양섭 김세영 이진영
김지영 조경자 이영규 김인숙 조정희 안승기 위은주
강충원 김행자 김태관 류길순 허은숙 한종숙 권유순
이명호 김상복 윤경운 이장순 김기탁 이정희 기성임
전 오 김경자 이봉운 최병후 손옥희 이종식 김승철
심상백 황유숙 신용호 박동국 최미숙 서기성 김희순
박현규 조점순 장양순 박정숙 동주김영숙
동대문교회 구로동장로교회 동대문교회 창천교회
세운모임 창덕제일교회

후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 008601-04- 085967 (박해평)
※국민은행 : 830-01-0115-113 (박해평)
※우리은행 : 1002-530-306592(박해평)
※농 협 : 027-12-194356(차 재 연)
※신한은행 : 110-372-906825(한국교육자선교회)